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마음자리 내는 그 자리가 있다

## 철야정진법문 ④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날 때려 하면 아파. 아픈 줄 아는 놈은 탄 놈이거든. 아파. 아, 여기 아프다. 팔이야 혹은 다리야. 여기 아프지. 하나 아픈 줄 아는 놈은 손 자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거든. 이 보는 놈 듣는 놈 맛보는 놈. 이 자리가 있다 말이야. 안이비설신의. 이거 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환하게 아는 분들이 있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의심을 가지면 그만 해결이 돼버린다 말이야. 그만 해결이 돼버려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그만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가만 눈치를 보니 실감이 안 오는 것 같아. 실감이 안 오지만은 사실 인데야 어찌할 거냐 말이야. 나중에 실감 와요. 그러면 보는 놈이 뭐고? 보는 이 자리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몸통이 있을 뿐이요. 이 자리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입니다. 이거 뭐 환한 일입니다. 이걸 갖다 말해서 절대성자리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이래 하는데 사실로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눈으로 못 봅니다. 만일 마음이 없는데 눈으로 본다 하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만약 마음이 없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죽은 사람의 눈이 뭘 보던가요? 죽은 사람의 귀가 들던가요? 안 들어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참말로 무엇이 있거든. 참말로 무엇이 있어. 아,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 이거 알 수 있어. 이것들은 알 수 있어. 여러분, 이 기회에 이거 단정하고 가세요. 사실 서술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 돈 삼만 원 내지, 좌우간 돈 삼만 원 이상 없애줍니다. 없애져도 괜찮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 할 것 같으면 큰 수확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 아닌데 봐.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탄 놈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놈이 봐. 귀가 듣는 건 아닌데 들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듣는 겁니다. 확실히 무엇이 있다 말이죠. 그 무엇이 바로 내어. 우리가 보림선원에 가서 철야해야 되겠다 그 마음 내는 그 자리가 있거든. 이 자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절대성자리라고도

하고 이래. 우리 보림선원에서는 절대성자리라고 내가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성자리라고 하면 대개 알아들어요. 절대성자리대 몸은 상대성이거든. 그런데 상대는 절대성에서 오는 거라요. 이 절대성 자리가 없으면 상대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것이 옳은데 실은 하나가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좌우간 눈이 본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닌데 본다 하면 보는 놈은 있거든. 누가 보는 놈 거부할 거여.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다

“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듣는 겁니다. 확실히 무엇이 있다 말이죠 그 무엇이 바로 내어 이 자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이래

말이죠. 틀림없이 듣고 있거든. 귀는 아니거든. 그럼 누가 듣노 말이야. 이거 이만치 간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 아하, 이렇게구나. 이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걸 듣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추측하게 됩니다. 듣는 그 자리 못 찾습니다. 그럼 내, 내라 말이야. 나라 할 것 같으면 이 자리가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딱!(쭈비 치는 소리) 참 빠르다. 하하하.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안다 할 것 같으면 내 지금 내려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고 있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있어. 이것만 하더라도 무엇이 할 것 같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걸 갖다가 이 육신을 시켜서 이리 해서 보고 듣고 밥을 먹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나중에 이래 합시다. 나중에 한 시간 더 있으니까 십 분 더 연장합시다.

이거 여러분 싱거운 말이예요. 세상에 이렇게 싱거운 말이 어디 있나요? 이 싱거운 말을 싱거운 말로 알지 않고 여러분이 한 번 참말로 명심을 한다면 말이야 이 자리에서 해결 다 됩니다. 아하, 진짜 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구나. 성을 내는 것도 그래. 내가 내. 남이 내는 거 아니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거든. 그런데 성을 내는 것은 이놈을 통해서 성내는 행동을 해. 옷 여도 그래. 이놈이 하는 거여.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딱 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이 자리거든. 보살님도 이 자리라. 좋아하는 친구도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무나 쉽고, 아이고 부산까지 와서 싱거운 말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싱거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갖다 확실히 알아버리면 울지. 눈이 보는 것 아니구나. 그러나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듣는 것은 귀가 듣는 것 아니구나.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맛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혀바닥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맛은 봐. 그러니까 본다 듣는다 맛본다 확실히 이거 있거든. 이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땐 부회(회)가 나면 내다 이어서 가슴을 치고 이한테 내라 하는 그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문제 해결 다 합니다. 이전 어른들이 크게 했던 적게 했던 좌우간 견성을 했다는 분은 이 자리 안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 말씀했어.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무릇 있는 바 형상은 모든 것이, 형상, 상, 이 육체 이진 다 허망한 거다 말이야. 약견 제상비상하면, 만약 모든 상을 갖다가 비상으로 알면 죽건어래. 부처님 말씀이예요. 바로 천기누설 했습니다. 이거 허망한 것이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참말로 나는 빛이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아무 것도 없는 이 자리가 내다 이것부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다음 시간에 설법 딱히 들어갑시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광명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

## 4-3 귀경례

지심귀명례극락세계아등도사아미타불(至心歸命禮極樂世界我等導師阿彌陀佛)(一拜)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 오고 가는 사람의 왕래가 있다. 자기가 거처하는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꽃을 심어 단정한다든지 향을 피운다. 그러면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 곧 성현이라도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된다. 성현 중에도 대표자 격인 부처님을 모셔오기로 한다.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석가모니부처님. 이에는 인도라고 하는 지역 석가족성(釋迦族姓)이며 시대의 한계성이며, 또 정반왕(淨飯王)의 아들, 마야부인(摩耶夫人)의 아들, 야수다라부인(耶輸陀羅夫人)의 남편, 라후라(羅候羅)의 아버지라는 하나의 국한(局限)된 인간상(人間像)이 떠오른다. 인간적인 국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인간적인 국한을 받으므로 이 국한을 초탈하여, 만덕을 구비한 그 대인격자의 이상(理想) 아이디어를 우리가 인격화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를 부처님의 인격이라고 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릇 모든 덕(德)을 다 거룩하게 갖추신 부처님을 우리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원효대사는 아미타불을 말씀하시기를 무덕불비(無德不備)라고 하였다.

아미타불은 석가모니의 이상인 동시에 전 세계 인류의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이 부처님은 보신불(報身佛) —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세 가지 있다고 본다. 삼신불(三身佛)이라는 것인데 첫째는 법신불(法身佛)(Dharmakaya)로 진리의 몸통이라는 뜻이다. 둘째는 보신불(報身佛)(Karmakaya), 형상이 있는 또한 업보(業報)가 있는 부처라는 뜻. 그리고 셋째는 화신불(化身佛)(Sambhogakaya), 교화(教化)하는 부처님의 몸.

아미타불은 실재(實在)하는 보신불(報身佛)로서 우주 법계의 덕과 같으며, 우주의 체상(體相)을 구비하였다. 그리하여 열반(Nirvana)의 경지에 있는 부처님이시다. 열반이란 모든 망념(妄念)에서 벗어나 깨달은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이것이 와전되어 존히를 입멸(入滅)하였다 죽

었다는 것을 열반하였다고 쓰는데, 이는 잘못이고 그것은 반니르바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극락(極樂)을 역시 천당(天堂)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의 천당은 지옥(地獄)에 대한 것으로 심판(審判)에 의하여 선악(善惡)의 보상(報償)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베다(Veda) 성전(聖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은 불교의 근본 문제도 아닐 뿐더러 이를 부인하는 것이며 극락세계란 천당과는 완전히 다르다. 극락(極樂)은 극고(極苦)와 대비된다.

“  
무명에서 망상이 일어나고 온갖 욕심이 생기는 것이며 큰 고통을 받게 된다 환히 밝아졌을 때 깨졌다 하며 도통했다 한다 깨친 다음에는 망상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지를 열반이라 한다

“  
이 두 개의 세계는 누구의 심판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선악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절대경(絕對境)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것은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밝지 못한 여기에 우리들이 매어달려 헤매고 허우적거린다. 이에서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기에 따라 온갖 욕심이 생기는 것이며 욕심을 만족치 못할 때에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무명이 오관(五官)을 통해서 움직이는 동안 욕망을 충족시킬 때도 있고, 그리 못할 때도 있어 많은 고통을 받는다. 이를 칼마(Karm)라고 하여 업(業)이라고 하는 그것이다. 나는 이것을 '짓'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깨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이제 망상에 움직이지 않고 모두 환하게 밝아진다. 환히 밝아졌을 때 우리는 이를 깨쳤다 하며 도통(道通)하였다 한다. 깨친 다음에는 망상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깨쳤다는니 하는 이 경지를 열반(涅槃)이라고 하는 것이다. 깨쳤다 할 때에는 커다란 광명(光明)이 있다. 오로지 광명뿐이다. 이것을 도통했다고도 한다.

광명이 있으면 그저 환히 밝기만 하다. 어두운 것은 왜 어두운가?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인가? 어둠, 그 자체를 포착하려 들면 편이나 어두워진다. 그러나 광명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 어두운 것은 광명이 없어졌을 때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비자(Abija) 무명(無明)이란 것은 깨치지 못하였을 그때에 있는 현상이다. 무명이 없어졌다. 할 때는 우리들이 부처가 되었다. 깨쳤다 할 때다. 그러므로 깨쳤을 때에는 우리에게 환희와 보은(報恩)과 대자대비(大慈大悲)가 있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따름 아무런 고(苦)가 없다는 그때를 일컬어 부처님이 대각(大覺)을 성취했다고 한다.

이 지경이 극히 낙되는 곳, 극락세계(極樂世界)다.

자기 한 몸으로 우주와 전 인류를 가를 수 있고, 전 인류가 자기 자신에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지경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자기와 남이라 하는 그런 차별 관념이 전연 없고 자기와 일체중생, 전사회가 자기가 하는 그런 사명을 깨달을 뿐이다.

이런 때 모든 고(苦)는 사라지고 없다. 고가 사라지고 없을 때 그것은 깨친 상태를 말하여 준다.

고는 조건의 집합(集合)이며, 무명의 원인은 집(集)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은 고(苦)다, 고통의 조건은 모든 것이 모여서 그런 것이다 하시고 이를 고제(苦諦)라고 하여, 고의 원리로 삼으셨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펴)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